

1887년 개정판 『마가의전 혼복음서언히』 고찰

옥성득*

1. 서론

현재 이수정 역본 마가복음에는 네 가지 판본이 있다. 『新約聖書馬可傳』(1884), 『신약마가전복음서언히』(1885), 『마가의전 혼복음서언히』(1887), 그리고 『마가의전 혼복음서언히』(1893)이다. 첫 판본은 한문에 토를 단 현토(懸吐) 한문본이고, 두 번째는 국한문 혼용본이며, 나머지 두 판본은 순 한글본이다. 인쇄처로 구분하면, 첫 세 판본은 요코하마 복음인쇄합자회사에서 출간했고, 마지막 판본만 서울 배재학당 내 한미화활판소(Trilingual Press)에서 간행했다. 지금까지 마지막 판본을 표지나 안표지에 발행연도가 없어서 1887년 판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 오류가 발생한 한 이유는 대한성서공회가 1893년 판의 원본을 소장하고 있지 않아, 발행년이나 활자 등을 자세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수정 역본 마가복음들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성서공회(이후 ABS로 표기)가 2015년 4월에 대한성서공회에 기증한 마가복음 역본 표지에서 1887년에 발행한 서지사항을 발견하였고, 그 본문을 기존에 알려진 1887년 판본과 비교해 본 결과, 기존에 1887년 판으로 알려진 판본이 국내에서 1893년에 출간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실 대한성서공회는 ABS로부터 1999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이 1887년 판본을 기증받았으나, 1999년에는 그 판본을 다른 판본과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귀중본 서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에 기증 받은 판본의 표지에 ABS 도서관에서 작성한 서지사항이 있어서 여러 판본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현토본을 제외한 나머지 세 판본을 비교하여, 1887년 판본을 확정하려고 한다. 곧 지금까지 알려진 1887년 판본으로 알고 있었던 마가복음은 사실 1893년 판본임을 사료를 통해서 확정하려고 한다. 이는 1885년, 1887년, 1893년의 세 판본의 본문을 비교·분석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초기 선교사

* 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 한국기독교 부교수. sungook@hotmail.com.

들의 성서 번역 과정과 원칙도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네 가지 판본의 서지 사항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新約聖書馬可傳』, 日本 橫濱印行, 福音印刷合資會社, 明治十七年(1884). 米國聖書會社 출판. (2)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¹⁾, 日本 橫濱印行, 福音印刷合資會社, 明治十八年(1885), 米國聖書會社 출판, 87면. (3) 『마가의전후복음서언해』, 日本 橫濱印行, 福音印刷合資會社, 明治二十年(1887), 蘇格蘭 聖書會社(스코틀랜드성서협회) 출판. (4) 『마가의전후복음서언해』, 한성, 한미화활판소, 1893, 미국성서공회 출판.

1885년 판 마가복음은 이수정이 번역하고 ABS가 후원하여 출판했으며, 1887년 판 마가복음은 1885년 판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수정하고 스코틀랜드성서공회가 지원하여 발행했다. 그런데 이 [신87년 판]의 본문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1887년 판 『마가의전후복음서언해』(참고, 『대한성서공회사』 1권, 153~157쪽)보다 시대가 앞선 본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2015년 11월 대한성서공회 120주년 기념행사 때 전시실에 이 새로운 1887년 판 마가복음을 공개하고, 기존의 1887년 판본(이후 [구87년 판]으로 표기)보다 시대가 앞선다는 사실만 설명했다. 이후 세 가지 이수정 역본—[85년 판], [신87년 판], [구87년 판]—을 비교 검토하고, 관련 자료와 편지들을 검토한 결과, 『대한성서공회사』 1권에 정리한 [구87년 판]은 사실 1893년에 서울의 한미화활판소에서 발간된 개정판이며, ABS가 기증한 [신87년 판]이 1887년 요코하마에서 발간된 수정판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고찰하겠다.

2. 1885년 이수정 역본 발간과 서울에서 수정 시작

1883년 4월 29일 미국 북장로회 일본선교회의 녹스(Rev. Dr. George W. Knox)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이수정([사진 1] 참고)은 ABS 일본 지부 루미스 총무의 후원 아래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했다.²⁾

이수정은 신약 성서 번역과 몇 권의 소책자 번역 외에도, 미국 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인 “마게도니아인의 부름”을

1) 표지에는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로 되어 있으나, 본문 첫 쪽 표제는 “마가馬可의전傳후 복음서언해福音書諺解”로 한글 한자를 병기하였고, 본문 왼쪽 테두리선 바깥 소제목은 “마가전복음서”로 적었다.

2) G. W. Knox, “Affairs in Korea”, *Foreign Mission* (1883. 6.), 17; “Rijutei the Corean”, *Foreign Missions* (1883. 9.), 148. 야스가와 목사는 세례문답에 참여했다.

보냈다.) 이 편지 결과 북장로회 해외선교부는 한국 선교를 결정하고, 헤론을 첫 선교사로 임명하고 이어서 언더우드를 첫 목회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수정은 또한 한인 유학생들에게 전도하여 개종자들과 함께 동경한인교회를 설립했다. 이 세 가지 점에서 볼 때 이수정은 한국인 첫 해외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하겠다.



[사진 1] 1883년 4월 29일 이수정 세례 기념 사진:

녹스, 중국인 교사, 루미스, 야스가와 부부와 함께

[출처: H. Loomis, "Rijutei's Strange Dream", *Christian Herald* (1902. 1. 8.), 41.]

현토 4복음서 번역에 이어 번역한 국한문 『신약마가전복음서언히』는 1885년 2월 ABS의 지원으로 요코하마 복음인쇄소에서 1,000부가 출판되었다. 1885년 1월 15일 요코하마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2월 27일 도착한 아펜젤러는, 루미스 총무로부터 이수정본 마가복음 수신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이 복음서 몇 부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손에 들고 제물포 항에 내

3) Rijutei, "The Gospel for Corea," *Illustrated Christian Weekly* (1884. 1. 26.), 46; "Rijutei to the Christians of America", *Missionary Review* (1884. 3.), 145-146.

4) "Japan and Korea", *Foreign Missions* (1884. 9.), 150.

린”⁵⁾ 것은 아니었다. 또한 첫 선교사들이 번역된 성서를 가지고 온 것은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이미 로스 역본이 국내에 상당수 반포되고 있었고, 이수정본 마가복음은 부산 지역 외에는 별로 반포되지 않았으며 개종자를 만들지도 못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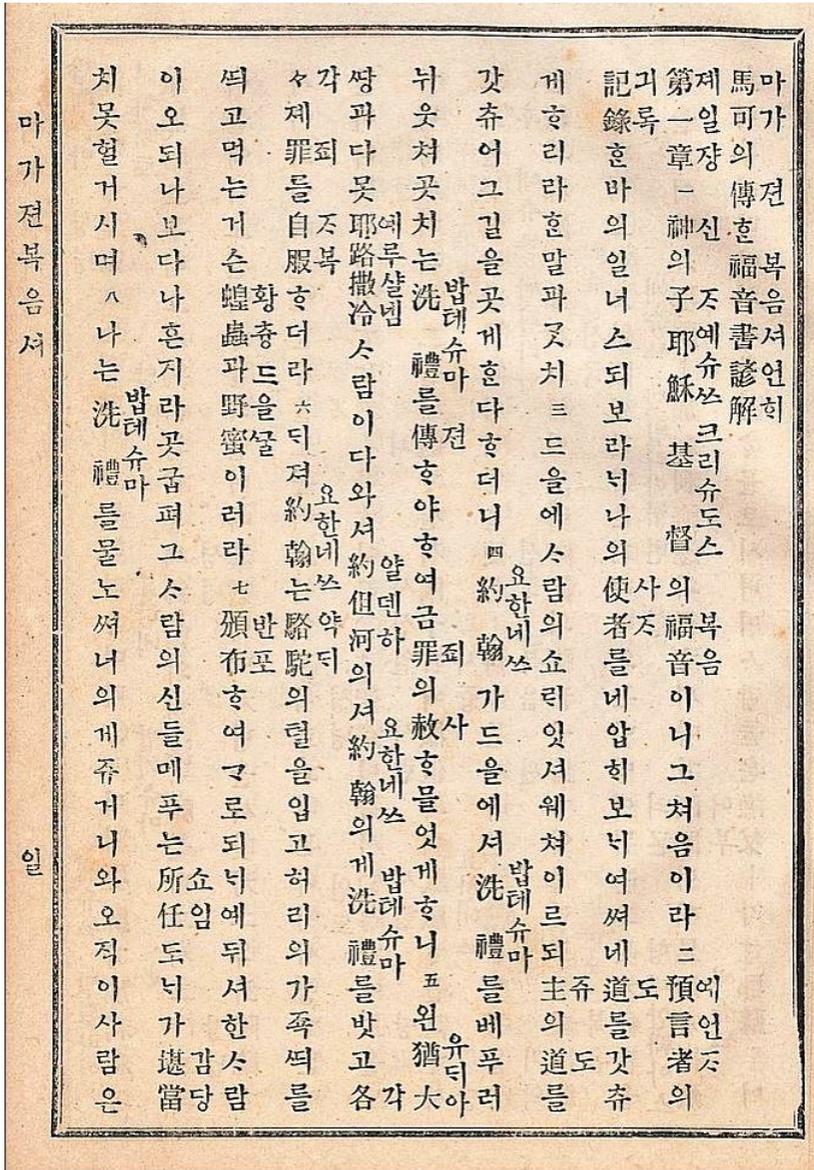
[사진 2] 이수정: 1883년 5월 동 전국기독교도친목회 후
[출처: “Korea”, *Bible Society Record* (1903. 12.), 183.]

언더우드는 4월 5일 그날 바로 서울에 입성했는데, 짐도 함께 가지고 왔다. 반면 아펜젤러는 정세 불안으로, 짐은 제물포에 두고 나가사키로 돌아갔다. 대신 스크랜턴 목사가 5월 3일 제물포에 도착했고 6일 서울에 들어왔는데, 그도 루미스가 준 이수정본 마가복음 한 꾸러미(a small package of books)를 가지고 왔다. 루미스는 한국 세관에서 발각되어 통관되지 않을 경우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루미스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도 동일한 양을 주고 그런 말을 덧붙였다.⁶⁾ 아펜젤러는 6월 20일 헤론과 함께 제물포에

5) W. D. Reynolds,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into Korean”, *Korea Review* (1906. 5.), 171; 민경배, 『韓國基督教會史』(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67.
6) W. B. Scranton, “Historical Sketch of the Korea Mission of M. E. Church”, *Korean Repository* (1898. 7.), 257.

도착했으나, 사택 준비 관계로 7월 29일에 서울에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수정 역본을 반포하려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1장 1절 “神의子耶蘇基督의福音이니그쳐음이라”(“신의즈예슈쓰크리슈도스의복음이니그쳐음이라)에서 한국인들은 ‘신의 아들’을 ‘귀신의 아



[사진 3] 1885년 마가복음 첫 페이지

들'로 오해했기 때문이다.⁷⁾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기한 용어 문제는 타당성이 있었다. 그러나 루미스는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초보 선교사들의 성급한 판단으로 간주했다. 어쩌면 새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첫 일이 성서 번역인데, 이미 만주와 일본에서 이루어진 번역이 있다는 점에, 두 선교사는 내심 비판거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한국어를 익히면서, 루미스가 서울을 방문한 1885년 10월부터 이수정의 마가복음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루미스 총무도 서울 주재 선교사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두 선교사는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했으므로, 어학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유명사 표기와 주요 용어를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 수정 작업은 1887년 2월 초에 거의 마무리되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마가복음 수정을 거의 마치자, 신속한 성서 번역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함을 느끼고 1887년 2월 7일 헤론과 스크랜턴과 함께 성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결정한 사항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위원장에 언더우드, 서기에 아펜젤러를 선출한다. 둘째, 휴양하러 일본에 가는 언더우드는 번역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셋째, 아펜젤러는 로스에게 편지하여 서울로 초청하고 번역에 협조를 구한다.⁸⁾ 이로써 일본과 만주에서 이루어진 기존 번역 사업을 계승하되, 서울의 성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글 성서 번역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마가복음 개정의 최종 작업은 아펜젤러가 맡았다.⁹⁾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번역할 때 어학교사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한국인 어학교사들은 초고 수정, 개정, 교정 등 모든 과정에 일정한 도움을 주었다. 언더우드의 어학교사는 송순용(송덕조)으로 전직 천주교 신부들의 어학교사였다. 그는 『한불조전』(1879)의 편집에 참여했다. 그는 천주교가 100년 가까이 교리서를 번역하면서 축적한 신학 용어, 철자법, 문법 등을 언더우드와 개신교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서울 번역 팀이 심양의 로스 팀과 다른 번역이 가능했던 이유였다. 1886~1887년 아펜젤러의 어학교사 겸 번역 조사는 권서 최성균과 배재학당 학생 한용경이었다.¹⁰⁾

7) H. G. Appenzeller's letter to Dr. E. W. Gilman, 1887. 8. 9.

8) H. G. Appenzeller, "Minutes of the Committee for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 1887. 2. 7.

9) H. G. Appenzeller's Diary, 1887. 2. 8.,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1권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198.

10)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1권, 188.

3. 1887년 이수정 역본 마가복음 수정본의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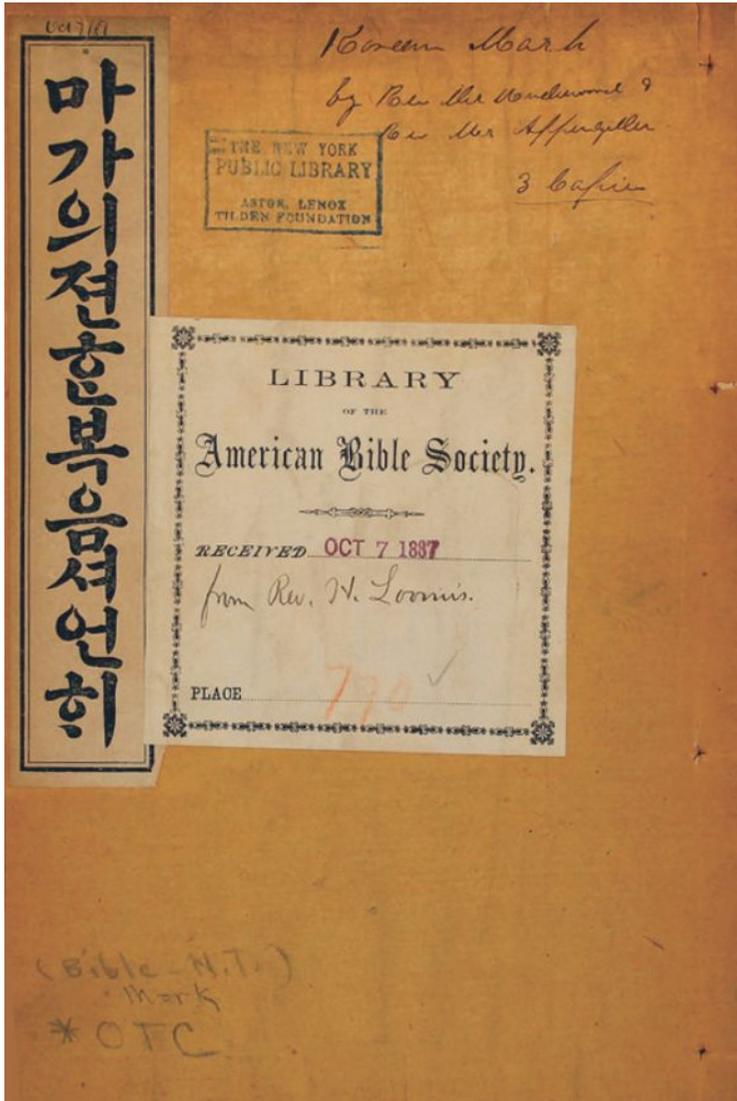
1887년 2월 중순 언더우드는 요코하마에 올 때 마가복음 수정본 원고를 들고 왔다. 그는 헵번 의사의 충고대로 일본 성서위원회가 채택한 3공회 연합 방식을 따르기로 하고, 루미스에게 마가복음 수정본을 3공회 연합본으로 출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루미스는 이수정본이 ABS의 출판물이므로 그 수정본도 배타적으로 출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더우드는 어쩔 수 없이 출판을 지원한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일본지부 톰슨(J. A. Thomson) 총무의 후원을 받아 조판에 착수했다. 언더우드의 협조 요청을 받은 영국성서공회 중국지부 총무들(마카오의 켈뮤어와 천진의 브라이언트)도 이미 로스본 마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 역본을 지원할 뜻이 없었다. ABS는 언더우드-아펜젤러 역본을 ‘경쟁본’으로 보았고, 영국성서공회는 ‘제3의 역본’으로 간주하고 지원을 거절했다. 즉 두 공회 모두 기존 번역본을 무시하는 성급한 번역본으로 보았다.

결국 1887년 서울 성서위원회의 첫 작품인 마가복음은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후원으로 8월 말경에 요코하마에서 2,000부가 출판되었다. 1885년 판과 마찬가지로 인쇄소는 책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ABS의 성서는 대개 요코하마 후쿠인쇄합자회사(横濱 福音印刷合資會社)에서 인쇄되었으므로, 87년 판 『마가의전혼복음서언회』도 복음인쇄합자회사에서 출간되었을 것이다. 복음인쇄소는 미미하게 시작되었으나, 곧 미국성서공회가 출판하는 일본어와 한국어 성경을 인쇄했으며, 이후에는 중국과 필리핀, 태국의 성경까지 인쇄했다.¹¹⁾ ABS는 요코하마 시 山下町 76번지에 있었고, 복음인쇄합자회사는 그 바로 옆인 81번지에 있었다.

4. 1887년 판의 겉표지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기증 받은 1887년 판 마가복음의 종이 겉표지 앞면(사진 4)을 보면 왼쪽에 별지에 인쇄한 책 제목이 길게 세로로 붙여져 있다. 복음서 제목을 붓글씨로 쓴 후 목판에 새겨 따로 인쇄한 표제는, 아마도 언더우드가 요코하마와 도쿄 지역에 있는 한인 유학생 중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11) “The Printing of the Scriptures”, *Bible Society Record* (1916. 5.), 109.



[사진 4] 1887년 판 마가복음 표지

중양에는 정사각형 종이로 된 ABS 도서관 책 정보 메모지가 붙여져 있는데, 도서관에 “Oct 7 1887”에 입고되었다는 날짜 도장이 찍혀 있고, 그 아래 “from Rev. H. Loomis”라고 펜으로 써 놓아 ABS 일본지부 총무 루미스 목사가 일본에서 발송했음을 알 수 있다. 곧 이 책이 요코하마에서 8월 말경에 출판되자, 루미스는 자신이 출판한 것은 아니지만 이수정본의 수정판이므

로, 9월 초에 뉴욕의 공회에 우편으로 보냈고, 10월 초에 도서관 사서가 목록에 올렸음을 알 수 있다.

표지 우측 상단에는 “Korean Mark by Rev. H. G. Underwood & Rev. H. G. Appenzeller, 3 copies”라고 펜으로 써 놓았다. 이는 루미스 목사의 글씨로, 그가 발송할 때 번역자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명기했으며, 도서관에 3부를 보낸다고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그 왼쪽에 사각형으로 찍힌 청색 스탬프의 글자는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stor Lenox Tilden Foundation”이다. 3부 중 한 부를 뉴욕공립 도서관이 틸덴 기금으로 매입한 듯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ABS로 왔다가 최근 대한성서공회로 기증되었는지 그 경로는 알 수 없다. 제본은 한지를 반으로 접어 4개의 구멍을 뚫고 실로 꿰매는 사침안정법(四針眼訂法)을 사용했는데, 당시 일본 목판화 책들의 제본 형식이었다. ABS가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자모를 가지고 있던 요코하마 후쿠인인쇄합자회사(横濱福音印刷合資會社)에서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5. 1887년 수정판의 활자

1885년 판본과 동일한 인쇄소에서 출간된 것은 본문의 활자를 보면 알 수 있다. 1885년 판과 1887년 판은 동일한 활자를 사용했다. [사진 6]에서 보듯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두 줄도 동일하다. 로스본에 비해 활자가 세련되고 아름답다. 이는 1884년 요코하마 지역에 유학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 중 누군가가 붓글씨로 쓴 것을 일본인 활자공이 연판 활자로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로 1879년 간행된 『한불조전』의 한글 목판 활자는 도쿄 히라노 활판 제작소에서 최지혁의 글씨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다만 1885년 판은 국한문 혼용으로 하면서 한자 옆에 작은 글씨로 한국어 발음을 병기했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11행만 식자하는 대신 행마다 29자를 식자했으나, 1887년 판의 경우에는 순 한글판으로 하면서 한 페이지에 13행, 한 행 당 27자를 넣어 글자 간격을 약간 늘려서 읽기 편하게 만들었다. 반면 1893년 서울의 배재학당 인쇄소에서 찍은 한 페이지는 세로 12행, 행마다 25자 형식으로 조판되었다.

1887년 판 마가복음은 1891년 국내에서 복음서를 출판하기 시작하기 이전, 로스본을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유일한 복음서였다. 로스본에 비해 훨씬 유려한 활자를 사용해 읽기 편하고, 아주 어렵지 않은 많은 한자 단어에, 문장도 훨씬 더 다듬어져 있어서, 독자들이 읽기에 좋았다.

마가의 전훈복음서 언히
 [데일장] - 상 데의 아 들 예 수 쓰 크 리 스 도 스 복 음 이 니 그 처 음 이 라 二
 션 지 자 의 기 록 훈 바 에 닐 너 스 되 보 라 내 가 나 의 스 자 를 네 압 회 보 내
 여 씨 네 도 를 궂 초 게 하 리 라 훈 말 과 궂 치 三 들 에 사 람 의 소 리 잇 서 웨
 처 닐 으 디 쥬 의 도 를 궂 초 아 그 길 을 궂 게 훈 다 하 더 니 四 요 한 네 쓰 가
 들 에 서 밥 테 슈 마 를 베 푸 러 뉘 옷 처 궂 치 는 밥 테 슈 마 를 전 하 야 하 여 곱
 죄 의 사 함 을 엇 게 하 니 五 원 유 디 아 쌍 과 다 못 예 루 살 념 사 람 이 다 와
 셔 요 르 단 하 슈 에 서 요 한 네 쓰 의 게 밥 테 슈 마 를 밧 고 각 각 제 죄 를 즈 복
 하 더 라 六 대 더 요 한 네 쓰 는 약 디 의 열 을 님 고 허 리 에 가 죽 썩 를 썩 고
 먹 는 거 손 황 총 과 들 쌀 이 러 라 七 반 포 하 여 글 으 디 내 뒤 에 훈 사 람 이
 오 되 나 보 다 나 혼 지 라 궂 굽 혀 그 사 람 의 신 들 메 푸 는 소 임 도 내 가 감
 당 치 못 할 거 시 며 八 나 는 밥 테 슈 마 를 물 노 씨 너 의 게 주 거 니 와 오 직
 이 사 람 은 밥 테 슈 마 를 성 령 으 로 써 너 의 게 주 리 라 하 더 라 九 이 때

[사진 5] 1887년 판 마가복음 첫 페이지



[사진 6] 1885년, 1887년, 1893년 판 마가복음 활자 비교

6. 1893년 판본의 서울 출판

1890년대 초기 국내에서 로스 역본을 수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서울 선교사들의 한국어 번역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1893년에 1887년 판 이수정의 마가복음 수정본을 일부만 재수정하여 서울에서 출판하게 된다. 올링거(F. Ohlinger, 한자 이름 茂林吉)가 배재학당 안에 설립한 감리회의 인쇄소가 본궤도에 올랐을 때였다.

1889년 올링거는 서울 정동 배재학당에 韓美華活版所(Trilingual Press)를 설립했다.¹²⁾ The Trilingual Press를 흔히 ‘삼문출판소’라고 하는데 출판사가 아닌 활판소(인쇄소)였다. [사진 7]에서 보듯이 1896년 한미화활판소로 불리다가,¹³⁾ 이후 미이미활판소와 감리회인쇄소로 불렸다.

한미화활판소의 활자는 올링거가 일본 요코하마 복음인쇄소의 한글과

12) W. B. Scranton, “Historical Sketch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 E. Mission”, 261.

13) “광고: 한영즈던 한영문법”, 『독립신문』 1896. 4. 7. 백낙준 박사가 1973년 『한국개신교사』를 번역·출판하면서 ‘The Trilingual Press’를 ‘삼문출판소’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1890년대에 ‘삼문’이라는 용어나 ‘출판소’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1900년대 초까지 활판소가 사용되었는데, 일본의 영향으로 1898년부터 인쇄소라는 용어가 점차 사용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1898년 명동성당 안에 설치된 성서활판소에서 천주교 문서들이 출간되었다.

한문과 영어 낱활자를 수입하여 사용했다. 인쇄기는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런데 1889년 10월 언더우드와 송순용은 일본 요코하마에 가서 복음인쇄소에서 필요한 한글 자모를 만들고 『한영즈던』과 『한영문법』을 출간하고 1890년 5월 서울에 돌아왔다. 송순용의 활자는 기존 활자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문법
 이 미국인 원두우 문든 거시니 한영 두척
 은 영국 말과 인문과 한문을 합쳐야 문든
 칩이오 한영문법은 영국 문법과 조선 문법
 을 서로 견주었시니 말이 간단 하야 영국
 말을 자세히 비호라면 이 칩이 잇서야 할
 거시니라 갑손 한영즈던스원 한영문법
 삼원 비지 한당 한미화활판소에 외사라

[사진 7] 한미화활판소 광고, 1896년

구약공부	익살	益撒	Isaac.
	이살	以撒	Ibsan.
	미시아	以麗亞	Isaiah.
	이식렬	以色列	Israel.
	이소	以掃	Esau.
	이(미)소파대미	以所波大米	Mesopotamai.
인디명목록	요이	約耳	Joel.
	요한묵시록	約翰默示錄	Revelation (Book of).
	요서야기	約書亞記	Joshua (Book of).
	요섭 (요압)	約押	Joseph.
	요술	約瑟	Joash.
	요단	約但	Jordan.
	유대	猶太	Judah.
	유대지릭리 흥	猶太之伯利恒	Beth-lehem-jud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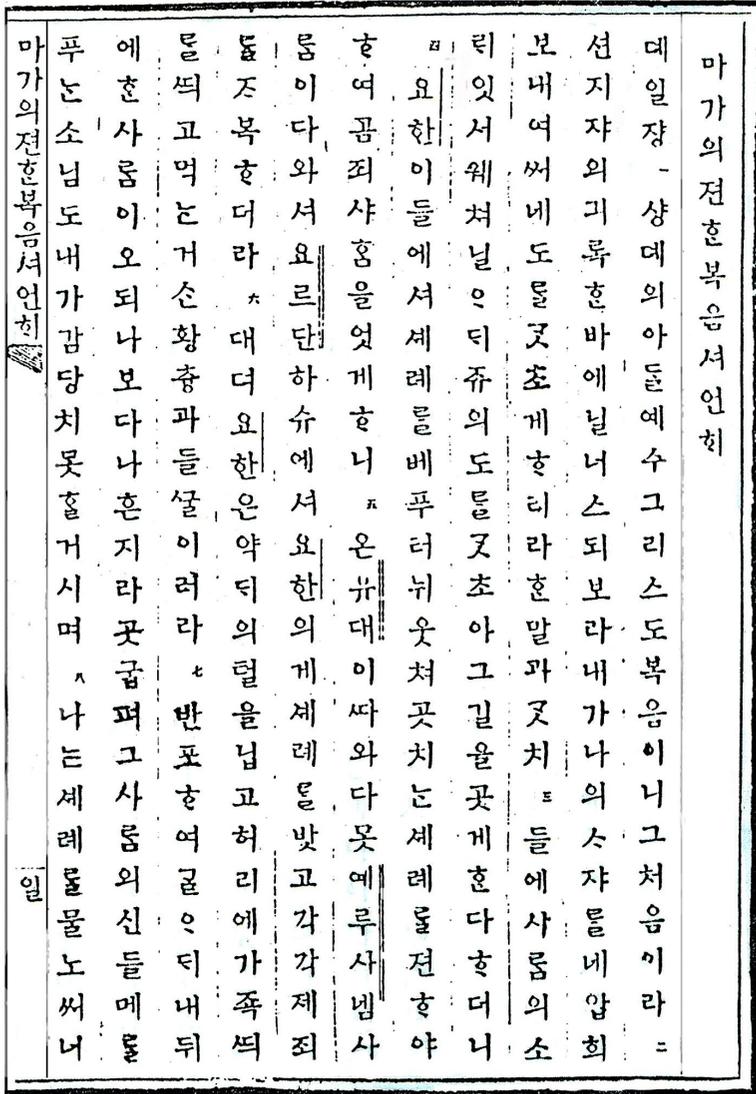
[사진 8] 존스 역, 『구약공부』, 1893년

1891년 펜윅과 서경조가 로스본을 수정한 『요안니복음』이 한미화활판소에서 나왔을 때, 그 활자는 1887년 판 마가복음과 동일했다. 그리고 1890년대 한미화활판소에서 인쇄한 소책자들의 활자도 동일했다. 1896년 4월 7일부터 한미화활판소에서 찍은 「독립신문」의 한글 활자는 마가복음 활자와 동일하며, 일부 활자는 추가된 듯하다.

1893년 판 발행을 위해 성서위원회 서기인 스크랜턴은 루미스 총무에게 그 5,000부 서울 인쇄비 지원을 요청했다. 루미스의 편지를 보자.

스크랜턴 의사와 올링거 목사의 편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스크랜턴 의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상임성서위원회에서 “스크랜턴 의사에게 개정본 이수정역 마가복음을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이 마가복음 5,000부 재판본 출판비는 미국성서공회에 요청하되, 서울에서 우리 감독

하에 인쇄하도록 결정한다.”¹⁴⁾



[사진 9] 1893년 판 마가복음 첫 페이지

14) H. Loomis's letter to Dr. Gilman, 1893. 3. 8., 옥성득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468.

루미스는 뉴욕의 길맨 총무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귀하의 3월 16일자 서신을 받았습니다. 테이머는 제게 스크랜턴 의사의 요청은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5,000부 인쇄에 필요한 종이를 주문했습니다. 총 출판비는 멕시코 달러로 300불입니다. 인쇄는 서울에서 요코하마에서처럼 아주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교정지를 적절히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자를 확실히 구할 수 있습니다.¹⁵⁾

미국성서공회 길맨 총무는 그 지원을 바로 허락했다. 루미스는 인쇄에 필요한 종이를 주문하여 서울로 발송했다. 이 서울의 재수정판 마가복음은 1893년 9월 말에 제본에 들어갔다. 한국인들의 성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역자위원회는 마가복음은 연합 독회를 하고 있었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번역하고 있었다.¹⁶⁾ 1893년 판 마가복음의 출판 부수는 5,000부였으며, 반포 가격은 1부당 3전이였다.¹⁷⁾ [사진 9]에서 보듯이 1887년 판본과 같은 활자를 사용했지만, 글자 간격을 약간 늘려서 첫 페이지에 8절의 첫 부분까지만 들어가면서 가독성이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이수정 역본 마가복음 재수정판이 1893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판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1893년 판을 1887년 판으로 오해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따라서 1885년 판, 1887년 판, 1893년 판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그 판본의 본문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

7. 세 판본의 비교

이수정 역본 마가복음의 세 판본, 곧 1885년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 ([85]로 표기), 새로 발견된 『마가의전훈복음서언해』 ([신87]로 표기), 기존에 알려진 1887년 판본 『마가의전훈복음서언해』(실제로 1893년 판, [구87]로 표기)의 1장 1-5절을 비교해 보자.

15) H. Loomis's letter to Dr. Gilman, 1893. 4. 17., Ibid., 472.

16) H. Loomis's letter to Dr. Gilman, 1893. 10. 6., Ibid., 477.

17) "Printing in Other Lands", *Bible Society Record* (1894. 5.), 66.

	[85]	[신87]	[구87]
1	신의즈예슈쓰크리슈도스 의복음이니그처음이라	상대의아들예수쓰크리스 도스복음이니그처음이라	상대의아들예수그리스도 복음이니그처음이라
2	예언즈의기록흔바의일너 스되보라닉나의사즈를네 압히보닉여씨네도를갓추 게히리라흔말과긋치	선지자의기록흔바에닐너 스되보라내가나의사자를 네압히보내여씨네도를긋 초게히리라흔말과긋치	선지자의기록흔바에닐 너스되보라내가나의사 자를네압히보내여씨네 도를긋초게히리라흔말 과긋치
3	드을에스람의소리잇서웨 쳐이르되주의도를갓추어 그길을곶게흔다히더니	들에사름의소리잇서웨쳐 닐으디주의도를긋초아그 길을곶게흔다히더니	들에사름의소리잇서웨 쳐닐으디주의도를긋초 아그길을곶게흔다히더 니
4	요한네쓰가드을에서밧테 슈마를베푸러뉘웃쳐긋치 는밧테슈마를전히야히여 금죄의사흔물엇게히니	요한네쓰가들에서밧테슈 마를베푸러뉘웃쳐긋치는 밧테슈마를전히야히여곰 죄의사흔물엇게히니	요한이들에서세례를베푸 러뉘웃쳐긋치는세례를전 히야히여곰죄사흔물엇게 히니
5	윈유디아짱과다못에루살 넬스람이다와셔알텐하의 셔요한네쓰의게밧테슈마 를밧고각각제죄를즈복히 더라	윈유디아짱과다못에루살 넬스람이다와셔요르단하 슈에서요한네쓰의게밧테 슈마를밧고각각제죄를즈 복히더라	윈유대이사와다못에루사 넬스람이다와셔요르단하 슈에서요한의게세례를밧 고각각제죄를즈복히더라

이 세 본문을 놓고 비교해 볼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명을 나타내는 외
줄과 지명을 나타내는 겹줄이 87년판 이후 사용된 것이다. 이 표시는 외래
어가 낯설었을 당시의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주요 용어
와 맞춤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1장 1절. 신의즈 → 상대의아들 → 상대의아들

‘신의즈’가 ‘상대의아들’로 수정되었다. 신 대신 상제를 채택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한국인이 이수정 역본 [85]를 거부한 주요 이유가 첫
구절에서 예수를 귀신의 아들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언더

우드와 아펜젤러가 용어 문제를 이유로 내세워 새로운 서울 위원회본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 둘째,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아직 로스 역본에서 채용한 하나님(하느님)을 수용하지 않은 단계였다. 두 선교사는 아직 신 용어를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한문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을 것이다. 셋째, [신87] 판본이 한문 성경에서 상제를 지지하는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지원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문리본은 上帝를 주로 채용하고 있었다.

1장 1절. 예수쓰크리슈도스 → 예수쓰크리스도스 → 예수그리스도

한국 기독교 문헌에서 ‘예수’는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와 『예수성교요안네횘복음전서』(1882)에 의해 채택되어 이후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수정 역본에서는 1887년의 [신87]까지 ‘예수쓰’가 사용되다가, 1893년 판본에서 ‘예수’를 채용했다.

반면 로스의 ‘키리쓰토’(1883~1887)나 이수정의 ‘크리슈도스’(1885) 대신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91년 언더우드가 자신의 사택에 ‘그리스도성서’라는 활판소(인쇄소)를 설치하고 출판한 『상대진리』, 『권중회기』, 『예수형적』 등에서부터였다. 예를 들면 『예수형적』은 “그리스도사경회에신묘년에 공부홀것”이란 부제를 가지고 1891년 3월에 출판되었다. 1891년에 국내 개신교 문서에서 ‘예수그리스도’가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언더우드가 1893년에 출판한 『중심지도』는 본문을 ‘주예수그리스도’로 시작했다.

한편 로스는 개신교를 ‘예수성교’라고 했으나, 1893년 서울에서 언더우드의 『예수교문답』이 나오면서 ‘예수교’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1891년 이후 용어인 ‘예수그리스도’를 사용한 [구87]은 1893년 판본이며, ‘예수쓰크리스도스’를 사용한 [신87]이 1887년 판 마가복음임을 알 수 있다.

1장 2절, 예언즈 → 선지자

1887년 수정판에서 일부 명사를 개정했는데, 예언즈를 선지자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었다. 한문 성경 문리본은 ‘先知’를 사용했다. 그러나 1879년 천주교가 발간한 『한불즈던』은 ‘선지자’를 채택하고 있었다. 아마도 언더우드의 어학교사인 송순용이 전직 천주교 어학교사였기 때문에 그의 영향으로 수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밧테슈마’는 그대로 두었다. 1893년 판에 와서 ‘세례’로 개정되었다.

1장 4절 요한네쓰 → 요한

1885년 판본과 같이 1887년 판본에서 ‘요한네쓰’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1893년 판에 가서야 ‘요한’으로 수정했다. 이는 ‘예수쓰’와 같이 1887년 판이 고유명사에서 여전히 라틴어 식 발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진 8]에서 보듯이, 1893년 서울에서는 고유명사에 대한 “인디명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약공부』(1893)에 적용했다. 인명에서 ‘요한’, 책명에서 ‘요한목시록’이 채택되었다.¹⁸⁾ 지명에서 유대, 요단 등을 채택했는데, 아래 5절은 ‘유대아’¹⁹⁾, ‘요르단’을 사용했다. 1891년에 이미 ‘유대’와 ‘유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893년에 ‘유태’와 ‘유대’가 공존할 정도로, 아직 성경의 고유명사가 한글 번역어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장 5절 알덴 → 요르단

이 예에서 보듯이 1887 판본에서는 고유명사 표기를 일부 수정했다. 또한 일너스되→닐너스되, 사즈→스자, 갓츄게→갓초게, 갓츄어→갓초아, 죄를→죄를 등으로 철자법을 수정했다. 이런 철자법은 1893년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상과 같은 차이는 1887년 판이 서울의 성서번역위원회의 역본이기 때문이다.²⁰⁾ 이수정의 1885년 판 마가복음의 1차 수정본이 1887년에, 2차 개정본이 1893년에 출간되었다. 참고로 1893년에 개정되고 이후 정착된 용어는 예수그리스도, 요한, 세례 등이었다.

8. 결론

위에서 기존에 알려진 1887년 판 『마가의전혼복음서언해』는 실제로 1893년 서울 배재학당 인쇄소에서 출판된 판본이며, 최근 ABS가 대한성서공회에 기증한 판본이 1887년 요코하마에서 출판된 수정판임을 살펴보았다. 세 판본의 변화는 1장 1절 첫 부분인 “神의子 예수쓰크리슈도스”(1885년) → “상테의아들 예수쓰크리슈도스”(1887년) → “상테의아들 예수그리스

18) 존스 역, “인디명목록,” 『구약공부 下』(한양: 한미화활판소, 1893), 3.

19) 막 10:1; 13:14에서는 지명을 “유대아”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곳은 “유대”에만 지명을 나타내는 겹세로줄을 사용하고 뒤이어 “-이”를 쓰고 있다. ‘유대아’의 오기로 보인다.

20)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1권, 207.

도”(1893년)로 수정된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구절이 “틴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변한 것은 1900년 한국성서위원회 임시본 『신약전서』의 마가복음에서 이루어졌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은 1911년 판에 이르러서이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개정한 1887년 판 『마가의전훈복음서언히』는 한글 성경 번역사와 출판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지녔다. 첫째, 서울에 거주하기 시작한 첫 목회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중심으로 성서위원회를 조직하고 국내 번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만든 이수정 역본을 저본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둘째, 그 실질적인 번역에는 천주교 신자였다가 언더우드의 어학교사가 된 송순용과 아펜젤러의 어학교사였던 한용경 등이 참여했다. 송순용은 천주교가 한 세기 동안 축적한 한글 번역 전통을 개신교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셋째, 국내 번역 문체에서 구어(입말) 중심의 로스역과는 달리 어원을 밝혀서 적는 문어(글말)의 전통과 국한문에서 온 한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전통이 1887년 판 마가복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넷째, 세 성서공회의 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1887년 마가복음 수정판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경쟁본이나 제3의 번역으로 성사되지 않았으나, 결국 한국성서위원회는 세 공회 연합을 추진했고, 1919년까지 한국 성서사업은 세 공회 연합 사업이 되었다.²¹⁾ 다섯째, 인쇄와 활자 측면에서 보면, 세 마가복음 판본의 활자가 모두 동일했는데, 이는 배재학당의 한미화활판소(韓美華活版所)의 활자가 요코하마 복음인쇄소의 것을 수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마가복음 세 판본의 활자는 초기 한글 전도 소책자는 물론 <독립협회>의 활자로 사용되면서 초기 한글 문서 활자로 자리 잡았다. 이 점에서 1887년 마가복음 판본은 한국 근대 한글 활자 발달에도 크게 기여했다.

주제어 <Keywords>

성서 번역, 이수정, 마가복음, 언더우드, 아펜젤러, 올링거, 한미화활판소.

Bible translation, Yi Su-Jeong, Gospel of Mark, H. G. Underwood, H. G. Appenzeller, F. Ohlinger, Trilingual Press.

(투고 일자: 2016년 1월 22일, 심사 일자: 2016년 2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3월 25일)

21)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1권, 210.

<참고문헌>(References)

- “광고: 한영즈던 한영문법”, 『독립신문』, 1896. 4. 7.
- 민경배, 『韓國基督教會史』,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옥성득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1권,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이수정(Rijutei), “Rijutei to the Christians of America”, *Missionary Review* (1884. 3.), 145-146.
- 이수정(Rijutei), “The Gospel for Corea”, *Illustrated Christian Weekly* (1884. 1. 26.), 46.
- 존스 역, “인디명목록”, 『구약공부 下』, 한양: 한미화활판소, 1893.
- “Korea”, *Bible Society Record* (1903. 12.), 183.
- “Japan and Korea”, *Foreign Missions* (1884. 9.), 150.
- “Printing in Other Lands”, *Bible Society Record* (1894. 5.), 66.
- “The Printing of the Scriptures”, *Bible Society Record* (1916. 5.), 109.
- Appenzeller, H. G., “Minutes of the Committee for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 1887. 2. 7.
- H. G. Appenzeller’s letter to Dr. E. W. Gilman, 1887. 8. 9.
- Knox, G. W., “Affairs in Korea”, *Foreign Mission* (1883. 6.), 17.
- Knox, G. W., “Rijutei the Corean”, *Foreign Missions* (1883. 9.), 148.
- Loomis, H., “Rijutei’s Strange Dream”, *Christian Herald* (1902. 1. 8.), 41.
- Reynolds, W. D.,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into Korean”, *Korea Review* (1906. 5.), 171.
- Scranton, W. B., “Historical Sketch of the Korea Mission of M. E. Church”, *Korean Repository* (1898. 7.), 257.
- Scranton, W. B., “Historical Sketch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 E. Mission”, 261.

<Abstract>

A Study on the 1887 Revised Edition of the Gospel of Mark

Sung Deuk Oak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This paper discusses and compares three Korean versions of the Gospel of Mark, published in 1885, 1887, and 1893, and confirms a new-found edition (donated by the American Bible Society to the Korean Bible Society in 2015) as the 1887 version. The 1885 edition was the first Korean gospel printed in Japan. It was translated by Yi Su-Jeong, printed at the Fukuin Printing Company in Yokohama, and published by Rev. Henry Loomis of the Japanese agency of the American Bible Society. By this identification, it argues that the other edition, which has been regarded as the 1887 one for a long time, is actually the revised edition printed at the Trilingual Press in Seoul in 1893.

The front cover of the 1887 edition has some notes and stamps, indicating that it was translated by Rev. Horace G. Underwood and Rev. Henry G. Appenzeller in Seoul. Three copies were sent to the ABS Library in New York by Mr. Loomis, which were catalogued on October 7, 1887, and one of the copies was purchased by the New York Public Library. Nevertheless, it was printed with the fund provided by Rev. J. A. Thomson of the Japan agency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in Scotland. Mr. Loomis of the ABS wanted to publish it as its own exclusive publication, and the agents of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in China regarded the new edition as a rival version of Ross's Korean gospel printed in Manchuria. The text reveals that the 1887 edition was printed with the same metal types used in the 1885 edition at the Fukuin Printing Company.

Interestingly enough, Rev. F. Ohlinger, director of the Trilingual Press in Seoul, imported the types from that Japanese company and printed a new edition of the Gospel of Mark in 1893. This final edition of Yi Su-Jeong's Gospel of Mark was revised more by the missionaries in Seoul with more suitable terms and spelling system. For example, "Jesus Christ" was spelled "예수 그리스도" for the first time in the 1893 e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1887 edition were as follows: it was the first gospel

translated by the missionaries in Seoul; Korean assistants (language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translation and Mr. Song Sun-Yong, a former Catholic translator, transmitted the century-long Roman Catholic studies of the Korean language to the Protestant Church; the literary style and Chinese or Sino-Korean terms of the Yi Su-Jeong version were appreciated by the literary Koreans and North American missionaries in Seoul, and thus exerted considerable influence upon the Bible translation from 1887; the 1887 edition failed to be published with the joint help from the three Bible Societies, yet it stimulated such joint project to be officially adopted from 1894 in Korea; and finally the metal movable types used in Yi Su-Jeong's Mark almost became the standard in mass publication of Protestant literature from 1887 to 1910 as well as in the *Tongnip Sinmun*, the first Korean newspaper printed at the Trilingual Press from April 1896.